

“정치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

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묵묵히 버티며 보낸 지난 2년여가 이제 그 막을 내리려는 듯합니다. 우리 기억 속에 여전히 뚜렷하게 자리하고 있던 일상의 모습이 다시 우리 곁으로 조금씩 그러나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설 듯합니다. 이 과정을 감내하고 적응하며 현장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묵묵히 전개하며 담대하게 보내고 계시겠지요. 이제 그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오는 6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광주의 명문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년여의 움츠렸던 시간을 털어내기 위해 조직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술적 성과를 나눔은 물론 그간 소원했던 교류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정치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입니다. 대중 미디어가 소통의 중추를 맡던 정치 소통의 과정이 극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제시하고, 오히려 대중 미디어는 이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모양새마저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그리고 소통을 위한 방식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미디어는 그 어느때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설렘과 기대 그리고 희망만을 가지고 이를 바라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외려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사회 공동체가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하고 타협하고, 이해를 조정하는 일련의 정치적 문법이 일정 부분 무너져 내린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이는 곧 우리 학회 연구자들에게 던지는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학회원 한분 한분의 아이디어가 모여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한 가능성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자 합니다.

2022년 봄철 정기학술대회는 다양한 기획세션이 준비돼 있습니다. 또한 일반연구회, 신진학자, 대학원 세션 그리고 한독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주제 세션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대주제 세션에선 독일 연방의원의 발제가 예정돼 있으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 분이 기획세션에서 발제 및 패널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학회 이틀째인 18일엔 전남 담양 죽녹원과 메타세콰이어 길 답사 등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간 지쳤던 심신을 조금은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기를 마무리하고 따뜻한 6월 엔데믹의 시작과 함께 아름다운 빛고을 광주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광재 올림

